

LGU+, 카카오모빌리티 등 5곳과 맞손 '하늘길' 사업 추진

GS칼텍스·파블로항공 등 참여
K-UAM GC 실증 컨소시엄 구성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목표
올 참가자 선정, 내년 실증비행 돌입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해 통신, 모빌리티, 에너지 등 각 산업군의 선두주자들이 손을 잡았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K-UAM GC는 오는 2025년까지 UAM의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비행체의 안전성, 교통관리 기능시험 등을 통합 운영하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1차 사업에서는 올해 참가자 선정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개항실증 비행에 돌입할 예정이며, UAM의 운용을 위한 인프라와 중계 플랫폼을 검증한다.

각사는 ▲한국형 UAM 표준 수립 ▲서비스 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개별 실증 수행 ▲향후 UAM 산업 관련 추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사진은 전날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각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가적인 사업 기회 공동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실증사업에는 UAM 기체 제작자,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운영자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LG유플러스는 UAM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교통관리시스템과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관리시스템은 UAM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통제해 기체간 충돌, 장애물 충돌을 막는 중요한 체계다. UAM의 비행계획과 운항정보를 분석해

항로를 이탈하는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LG유플러스는 드론 솔루션·서비스전문기업인 파블로항공과 협력해 교통관리시스템을 공동개발·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지상 기지국 UAM의 항로에 적합한 이동통신 상공 커버리지를 검증하고, 다가올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증사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통신 품질을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LG사이언스파크와 협력해 LG그룹의 배터리, 모터 등 역량을 모아 다가올 UAM 시대를 대비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완성형 MaaS 앱 '카카오 T'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멀티모달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고, 끊임없는 이동 지원을 위해 자동체크인 및 보안검색기능 등을 구현한 버티포트 솔루션 구축을 담당한다.

GS칼텍스는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UAM 버티포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유소는 도심에 비롯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천장 공간이 개방돼 비행체가 이착륙하기 용이해 UAM 거점으로 적합하며 버티포트 구축 시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주항공은 항공전문인력과 운항 관련 시스템 등 그동안 축적된 항공운항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파블로항공은 드론 솔루션·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스마트모빌리티 통합관제시스템(PAMNet)을 개발한 노하우를 살려 UAM 통합운항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이 사용할 기체는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시장에 1350여 대 이상의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제작 선주문을 받은 글로벌 리딩 UAM 기체 제조사로, 오는 2024년 열릴 파리 올림픽에서 시범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 경로 설계와 기체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이상업 LG유플러스 CTO는 "통신사업자로서 5G를 비롯한 이동통신이 지상 뿐만 아니라 UAM이 비행하는 하늘에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UAM 운행을 책임지는 선도사업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KT, C-ITS 발판 AI·모빌리티 사업 강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양·성남에 적용
골든타임 확보 등 사고처리시간 단축

디지털 플랫폼 기업 KT가 제주와 울산에 구축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을 발판 삼아 인공지능(AI)·모빌리티 분야 사업 강화에 본격 나선다.

KT는 11일 울산시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대 사업 수주로 확보한 성공적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C-ITS 및 ITS,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달 울산광역시에 C-ITS 구축을

마쳤다. 국내 최대 커버리지를 자랑하는 통신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킬러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주의 경우, 관광산업 특화 서비스와 함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주에 적용한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구급차·소방차 등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면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골든타임(환자의 생사 여부를 가르는 최소한의 대응시간)' 확보와 사고처리 시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었고, 올해 광양시와 성남시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울산시는 산업도시란 특성에 맞게 화물차 과속방지 경고, 권장운행시간 초과 알림 등 28개 실시간 정보 제공되

며, 특히 대표적 서비스로 화물차와 대중교통에 특화된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건물목에서 보행자 유무를 판단하고 만약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다.

이와 함께 KT는 ITS 분야에서도 지난해 대전광역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광양시까지 5개 지자체 사업을 수주하며 C-ITS·ITS 사업 분야의 1위 사업자 자리잡았다. 또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비롯해 판교 제로시티, 공군 서산비행단 등 다수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채윤정 기자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말레이 진출 결실

두본, 조호바루에 생산시설 완공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첨가제 공급업체의 말레이시아 진출을 지원하는 등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하고 나섰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10일 석유화학 첨가제 공급업체 ㈜두본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있는 롯데케미칼타이탄(LC TITAN) 공장 내 생산시설을 완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전에 ㈜두본이 건설한 말레이시아 공장은 2015년 준공한 중국 연태 공장에 이어 두본의 두 번째 해외 생산기지다. ㈜두본은 지난해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해 대지면적 1만2000㎡ 규모로 공장을 착공했다.

공장 부지는 고객사인 롯데케미칼이 자회사 롯데케미칼타이탄의 말레이시아 공장 주변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주)두본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소재 국

산화에 성공한 석유화학기업이라는 게 롯데케미칼의 설명이다. (주)두본은 자체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복합첨가제 원팩(폴리녹스)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원팩은 플라스틱 소재에 투입되는 산화방지제, 대전방지제 등 각종 첨가제를 하나의 팩에 혼합한 복합안정제로 기존엔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이였다.

(주)두본은 일본이 최초로 개발한 폴리염화비닐(PVC)의 안정제이자 스펙트스 원료인 '하이드로탈사이트'도 1997년 첫 국산화했다. (주)두본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기도 했다. (주)두본의 지난해 매출액은 830억원이었다.

롯데케미칼은 2010년부터 (주)두본 제품을 공급받아 합성수지 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액 확대와 공동연구를 통한 맞춤형 제품 개발 등으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허정운 기자

포스코, 네덜란드에 '포스루프355' 수출

운송수단 '하이퍼루프' 튜브용 강재

포스코는 친환경 미래 운송수단으로 꼽히는 하이퍼루프 튜브용 강재인 '포스루프355(PosLoop355)'를 네덜란드 하트에 수출한다.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하이퍼루프는 대형 진공 튜브 안에서 자기부상 캡슐이 시속 1000km 이상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항공기 대비 에너지 소모율이 8%이고, 고속도로 대비 건설 비용이 50% 수준으로 저렴하면서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일종의 열차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CEO)가 설립한 보링컴퍼니 등이 하이퍼루프 설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 정부도 국제 과제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하이퍼루프를 상용화하기 위해 시험 노선과 연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포스코가 공급하는 강재는 2000톤을 웃돈다. 네덜란드 하트는 오는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네덜란드 그로닝겐주빈담시에 있는 하이퍼루프 시험 노선에서 하이퍼루프 캡슐을 투입할 예정이다. 450m 길이의 구간을 달리는 하이퍼루프 캡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우선 275톤의 철강재를 공급하게 된다. 포스코와 함께 공동 개발한



세아제강이 포스루프355를 이용해 제작하고 있는 직경 2.5m의 하이퍼루프 튜브.

타타스틸도 별도로 275톤을 공급한다.

포스코는 지난 2020년부터 타타스틸 네덜란드와 함께 하이퍼루프 전용 강재와 구조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포스루프355 개발을 마치고,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약 1800톤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스마트사이니지 '탄소저감 인증'

영국·미국 등서 인증·등급 획득

삼성전자가 스마트 사이니지에서 친환경 노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영국 카본트러스트에서 2022년형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QHB)로 '탄소 발자국-탄소저감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는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 스타' 인증과, 미국

전자제품 친환경 인증제도(EPEAT)에서 브론즈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ISE 2022 기간 유럽 AV 뉴스가 수여하는 '올해의 지속가능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사이니지 전 모델에 친환경 에코패키지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형 고해상도 모니터(S8) 후면 커버에 해양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운 기자 juk@